한문실력 · 신행이 '쑥쑥'

금강선원 1백여 신도 한자공부
경전이해 · 수행에도 큰 효과

"다음은 연(緣)자네요. 인연 연이죠? 연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연(因緣), 연유(緣由)가 있네요."

7월 18일 오후 3시,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금강선원(원장 혜거)에 한자공부 열기가 여름날 만큼이나 뜨겁다. 30여 금강선원 신도들이 임시 강의실로 바뀐 법당에서 강수경(51 · 명선행)씨의 강의에 열중한다.

한문어문학회 주최로 11월 열리는 한자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벌써 3개월째 한자공부 중이다. 한자능력검정 1급 자격자이기도한 강씨도 1년전 똑같이 학생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3급반 강의를 맡고부터 3시간 수업을 위해 10시간을 준비한 뒤 강단에 섰다.

"오늘은 쪽지시험 보는 날인거 아시죠?" "어~!"

학생들의 탄성이 쏟아지는 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학창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책가방을 싸들고 법당 문을 나섰다.

금강선원에서 운영되는 한자공부반은 총 4개. 1~3급, 통감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2001년 12월 첫 공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급 자격을 받은 인원만도 1백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지역 복지관 등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까지 생겨났다. 1~3급반 강사들도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1급 자격을 얻은 신도들이다. 올해에는 1급반 20명, 2급반 25명, 3급반 30명, 통감반 20명 등 1백여명이 한자공부에 등록했다.

금강선원 불자들의 한자공부는 선원장 혜거 스님의 권유와 경전을 원전으로 강독하는 금강선원 특성상 신도들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향상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혜거 스님의 평소 법문을 들은 신도들이 한자공부반을 스스로 만들면서 금강선원이 자랑하는 신행형태로 자리 잡았다.

강수경씨의 강의로 한자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금강선원 신도들.

3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걸린 1년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해냈다는 강한 성취감과 아울러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품었던 반신반의의 마음이 결국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바뀐 것이다. 한자능력검정 급수에 연연하지 않고 신도들의 자기개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3년 1급 자격증을 딴 서혜선(47 · 환희장)씨는 "자격검정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된다"며 "공부가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엄마가 되는 즐거움을 결코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원각경> <금강경> 등 경전 원문을 이해하는데 한걸음 나아간 점은 또다른 수확이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보고 직접 이해하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 보다 감응이 커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불교를 뿌리내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보살행 실천하는 의료불자 될 것

서울 고려대의료원 7일 · 대구 불교약사회 14일 창립

대구불교약사회는 7월 14일 대구약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을 비롯해 지역 신행단체장과 약사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초대회장에 김태일 약사(극동약국), 부회장에 박동훈 약사(명보약국)가 선출됐다.

김태일 회장은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 불자들과 어울려 신행활동을 갖지 못했던 약사들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하고 신행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앞으로 정기법회와 함께 무료투약, 약물 오 · 남용 방지, 마약퇴치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 7일 서울에서는 고려대의료원불자회가 창립됐다(사진).

고려대의료원불자회는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법당 건립 추진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김우주 초대회장(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안암병원을 비롯해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법당을 개설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불자회가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려대의료원에서 10년째 호스피스 활동중인 지현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고려대의료원불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법회 봉행, 연2회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 박봉영 · 배지선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김명락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포교부장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포교사'
불심회 카페 개설 인터넷 홍보

지역 불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청 불심회. 1996년 불심회를 창립할 때 함께 일했던 도반들은 대부분 정년퇴임해버린 요즈음, 불심회 내에서 고참 중의 고참인 김명락(53 ·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포교부장은 여전히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힘이 있는 순간까지 불교를 전하겠다는 신념 때문이다.

"일붕선교종 포교사이기도 하지만 소속 종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큰 기쁨이지요. 포교를 수행이라고 여기면서 지냅니다."

김명락 포교부장은 '준비된 포교사'다. 그의 가방에는 언제 어디서든 집전할 수 있도록 목탁과 의범집이 들어있다. 또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에게 나눠줄 염주가 담겼다. 그러면서도 "길 안내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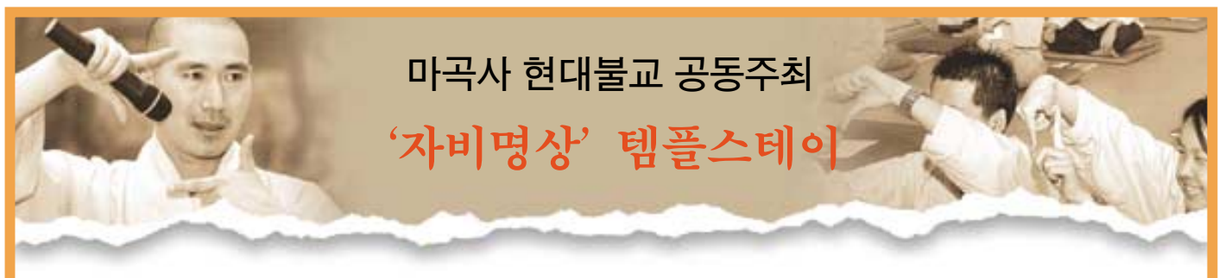
"벌써 물려주었어야 했는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의 열정을 불심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불심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는 김명락 포교부장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서예, 조각 등에 조예가 깊은 김명락 포교부장은 경기도 광주에 불교조각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심회와 조각원을 알리는 카페(cafe.daum.net/bsmrlkim)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불과 4개월여 남짓 동안 김명락 포교부장은 카페에 들리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명락 포교부장은 포교, 수행,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평소 강조한다. 재가불자들이 제역할을 찾을 때 한국불교 전체가 현재보다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그가 초발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신행터전이라 할 수 있는 신행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요. 재가불자 한사람 한사람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지만, 이 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거대한 힘이 나옵니다."

박봉영 기자



마곡사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마음의 틀 깨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

2차 이혼 사별자 위한 '새 출발'

'이혼 · 사별자를 위한 새출발'을 주제로 한 마곡사 제2차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계곡에서 진행된 '마음열기' 명상에서 받은 느낌을 노트에 젖고 있다.

'사랑.'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그래서 시인들은 사랑을 뿌리치기 어려운 '독약'과 같다고 한탄했다. 또한 이혼이 납 중독만큼이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인다는 한 연구결과는 사랑의 파탄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런 영향을 주는지를 방증한다. 이혼과 사별. 왜 그것들은 몸과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가?

마음 상처를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7월 8~10일 공주 마곡사를 찾았다. 마곡사(주지 진각)와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의 두 번째 테마는 '이혼 사별자 등을 위한 새 출발.' 지도법사 마가스님(마곡사 포교국장)과 20여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화두를 들고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상처없는 마음으로 새출발하기.' '마음열기' '자기 긍정명상' '감사명상' '구름이 흩어지듯' 등 치유명상 프로그램은 여행의 중간 정거장이다.

#"한번 웃어보세요" 주문에 멋쩍어진다

7월 8일 오후 2시 공주 마곡사. 20여 참가자들이 수련복을 갈아입고 옹기종기 앉아 있는 연화당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섰다.

그러자 대뜸 나오는 말. "사진은 찍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 속에서 무언가가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이혼자 특유의 정서.

마가 스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 받지 않고 살게 하자"고 설득한다. "그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간신히 한발 물러선다.

이어 마곡사를 감돌아 지나는 계곡으로 나왔다. 지도법사 묘운 스님이 "여러분은 지금 즐거워 죽을 듯 합니다.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라고 주문한다. 왠지 멋쩍다. 잠시 전 스님을 따라 수백 번씩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오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울고 싶은 사람은 울어보라"하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띈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테니….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어느새 웃음보다 울음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됐다. 필사적으로 이혼이란 암초에서 빠져나오려 했기에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다. 어떻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까?

묘운 스님은 "우리 사회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기쁨 슬픔 고통 등 감정과 생각을 죽이도록 한다"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살아나야 그간의 응어리를 터놓을 수 있고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기긍정'에서 시작된다.

자기긍정의 원리는 간단하다. 첫 번째는 평범함 속에 중요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템플스테이 입제 다음 날 아침 마가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쌀 한 톨씩을 나눠주었다. "쌀 한 톨이 우리 손 위에 오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 위에 써 보세요."

'쌀 한 톨이 뭐 대단해?'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 쌀알이 땅에 떨어져 다시 쌀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쌀을 키우는 농부의 직접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쌀을 운반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 석유를 파내는 정유회사,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수백만 년의 시간, 그리고 땅과 태양 등. 잠깐 동안의 생각에도 참가자들은 쌀 한 톨 안에 온 시방세계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쌀알보다 몇 백, 몇 천 배 커다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가?'

"그동안 내가 소중한 존재란 사실을 잊고 지낸 것 같아요. 여기 오기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의 나'는 그 분들이 원하던 모습인가 돌아보게 됐어요"(유심).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 하다.

#용서하세요, 다음 생엔 좋은 아내로…

자기 긍정원리 두 번째는 나에게 고통을 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 배우자였던 사람을 이해하는 것. 둘째 날 죽음체험 명상 '구름이 흩어지듯'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유언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죽음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마가 스님은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30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 보자"며 참가자들을 죽음 체험 명상으로 이끌었다.

유언장을 쓰며 느낀 공통점은 무얼까? 이혼의 피해자는 당사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혜' 씨는 유서를 "내 사랑하는 아들…야"로 시작했다. 그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자책감 때문이다.

"늙으신 부모님, 나이 들어 이혼한 딸 때문에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진' 씨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란 말로 유서를 끝냈다.

'한울' 씨의 유서에는 헤어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여보 미안해. 좀더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 아내가 될게요. 내 삶이 버겁다고 당신을 돌아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준비 됐지요?"

이혼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내가 모를 고통을 배우자 역시 겪고 있었으며, 결혼을 축복해주었던 가족과 친구, 결혼의 결과인 자식들은 나보다 더 큰 피해자였던 셈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죽음체험 명상을 끝내고 유언장을 태우기 위해 마곡사 입구 극락교에 섰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나와 그 사람, 내 가족이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화 다스림 명상이 진행됐다. 화 다스림 명상은 상대방의 말 행동 생각을 '~구나' '~겠지' '~ 감사합니다'라는 삼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소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명상을 하는 동안 드러났다.

화 다스림 명상에 이어 마가 스님의 특강이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틀에서 사물과 사람을 파악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결국 그 틀에 따라 나쁘고 좋다는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전도몽상이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물과 사람을 보고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순간, 그것들이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가 스님은 "여러분이 내는 한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주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과 행동, 사고를 바꾼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일어나 다시 걸을 준비가 됐지요?" (041)841-6227

글 · 사진/마곡사=강유신 기자

촛불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 세운 서원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있다.

마음열기명상. 참가자들은 자연을 바라본 느낌으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의 이혼 때문에 힘들었을 아들을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 한 참가자.